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평화연구소 Homepage: http://tongil.snu.ac.kr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E-mail: tongil@snu.ac.kr 발행인 박명규 편집 한준성, 한경은

2009년도 상반기 통일평화연구소의 새로운 시도들

6자회담 비참가국(Non-Direct Parties)의 역할

6자회담 당사자국 이외 국가들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

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 새로운 한반도 통일론으로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를 변화한 국제 환경, 남북한의 변화에 맞추어 보완하고 미래의 다문화상황과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감안한 통일론을 제시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연구소 창간 저널 『통일과 평화』에 실린 논문을 통해 남북간 비대칭성, 국제사회에서의 별개 국가성, 그리고 기본합의서 상의 특수관계론의 종합을 시도

남북관계에서의 Smart Power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되는 'smart power' 개념을 남북관계의 해석, 정책화과정, 대응역량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008 남북통합지수 분석

남북관계의 통합정도를 여러 영역별, 차원별로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남북통합지수 2008년도 수치를 발표. 1989년 이래 지수의 변동상황과 특징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진단과 정책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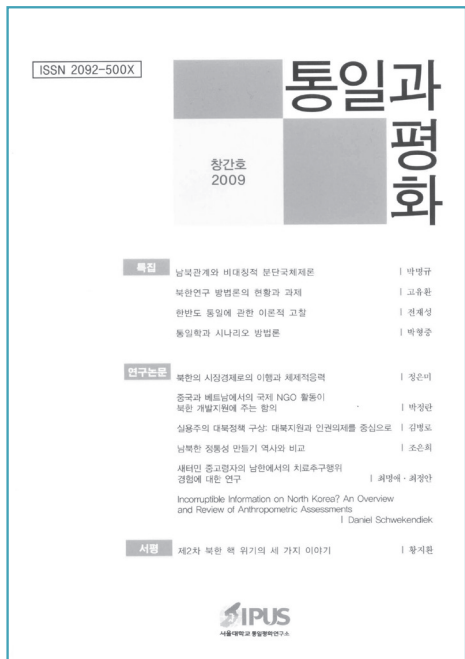
『통일과 평화』 창간

통일평화연구소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내외적으로 학문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통일과 평화 문제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통해 한반도 미래에 대한 학문적 준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과 평화』 창간호를 6월 22일에 발간했다.

『통일과 평화』 창간호는 통일의 과정 및 정책,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통일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순수 학술 논문들을 두고 받아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발간되었다.

『통일과 평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학과 평화학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학술지로 성장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 2회(6월, 12월)로 발간된다.

한편 창간호에 실린 논문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 남북통합지수 발표



연구소는 2009년 8월 12일(수)에 ‘2008 남북통합지수’를 발표했다. 남북통합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개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년 단위로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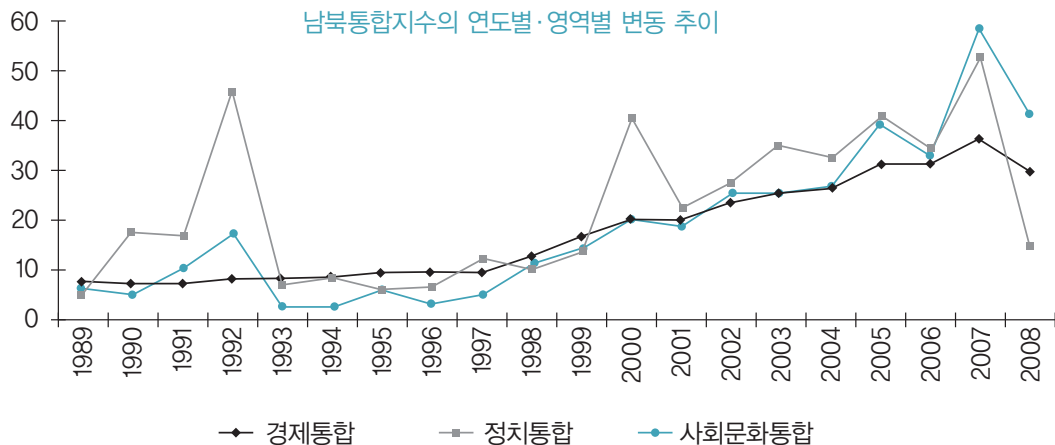
남북통합지수 모형은 연구소 내 4명의 공동연구자들(박명규, 김병로, 김병연, 정은미)이 참여하여 2008년에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측정 결과, 2008 남북통합지수는 2007년 270.9점(1,000점 만점)에서 61.4점이 감소한 209.5점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를 통합율로 전환했을 때 지난해 27%에서 올해 21%로 낮아졌다.

정치 영역의 통합지수 급락이 전체 지수의 하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간 통합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정치 영역의 통합지수는 2007년 50.3점에서 2008년 14.4로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남북통합 단계상 3단계에서 1단계로 하락한 것이다. 경제 영역은

2007년 37.8점에서 2008년 30.8점으로, 사회·문화 영역은 2007년 58.6점에서 2008년 42.5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폭은 1989년 이후 가장 큰 수치이다. 하지만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의 통합지수는 자율적 관성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통합단계상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영역의 통합지수는 모형의 남북통합단계상 1단계인 ‘비정기적으로 접촉, 왕래, 회담 등이 이뤄지는 접촉 교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2007년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 되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협력 도약기(3단계)’에서 급격히 후퇴한 것이다. 이같은 정치 지수의 하락 양상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듬해인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타났던 지수 급락(45.8→6.4)과 2001년 지수 급락(40.1→22.1)과 비슷한 역V형의 패턴이지만 급락의 속도상 1993년의 패턴과 더 유사하다.

통합지수의 급진적 후퇴의 원인에 대해 박명규 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남북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 됐으며, “남북대화보다 비핵화 자체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원칙이 상황을 악화” 시켰고, “내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북한의 과민한 대응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우발변수에 대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없었던 것이 하락의 근본 배경”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현재와 같은 남북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9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 이라며 “아직은 외상(外傷) 수준이지만 정책적 노력이 없을 경우 중병이 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2009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남북관계, 북한연구, 통일과정 및 체제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통일학을 정립하고 서울대학교의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통일문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결집시키며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학 기초연구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은 통일학의 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 또는 중요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해제 및 통일평화학 연구영역 내의 창의적 주제 발굴을 시도하는 '기획/자유과제', 소규모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지원과제', 그리고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로 그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1일 2009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획/자유과제에 총 9 과제(약 3억5천만원), 논문지원과제에 6 과제(2천4백만원),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에 1편(6백만원), 통일평화연구소 기획과제 1편(4천만원)이 선정되어 총 4억3천3백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각각의 과제명은 아래와 같다.

〈선정과제명〉

1. 기획/자유과제

- 독일 통일과 여성의 사회적 통합 - 한정숙 외 2명
- 남북한 국내정책레짐과 남북관계(1988-2010) : 지배연합과 정책승리연합의 변화를 중심으로 - 장달중 외 3명
- 대북태도 척도의 개발 : 사회심리학적 접근 - 박명규 외 1명
- 북한의 인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 김병섭 외 1명
-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 한반도 다람쥐의 종 분류와 계통지리 - 이항 외 2명
-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변화 분석을 통한 북한 농업개혁 전략연구 - 김관수 외 2명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외상사건 경험과 정신건강상태 평가 : 정신건강 방안 확충을 위한 심리사회적, 뇌과학적 통합접근 - 류인균 외 3명
-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제 모델개발 - 박상민 외 1명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 - 최명애 외 3명

2. 논문지원과제

- 사회주의 체제변화와 북한의 '실리 사회주의' :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 김근식
- 사회변혁기 북한지식인의 역할과 동향(1998-2008) - 북한 지식인의 정치의식 분석을 중심으로 - 전미영
- 대중독재 수단으로 역사적 기억의 활용 : 북한의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분석을 중심으로 - 조은희
- 북·미·중 관련 남남갈등의 구조와 해법 - 김재한
- 남북한 통합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 강동완
- 북한이탈주민의 의식과 한국사회정착의 실태조사(정착 3년미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 윤현기

3. 학위논문지원과제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어휘 교육 연구 - 강보선

4. 연구소 기획과제

- 새터민 의식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The Future of North Korea and Global Cooperation



지난 3월 13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공동으로 “북한의 미래와 국제협력(The Future of North Korea and Global Cooperation)”이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주한 호주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그리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후원한 이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호주, 영국, 미국의 학자가 참가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청중도 400여명 이상 참가하는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테드 립만 캐나다 대사의 개회사와 이장무 서울대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적 지원, 그리고 국제협력, 평화, 북한인권 문제 등 3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고려대학교 김병국 교수가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웨이드 헌틀리 교수(브리티쉬 콜롬비아대)와 전봉근 박사(외안연)가 북한의 핵문제와 비핵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이어 국민대의 안드레이 랜코프 교수와 서울대의 전재성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이에 대한 각국의 지원 및 협력을 주제로 삼은 두 번째 세션은 서울대의 김병연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대학교의 로젤라 이데오 교수와 한양대 장형수 교수, 그리고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박사가 EU 및 6자회담 비참가국들이 북한 경제 개발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독일 나우만 재단의 월터 클리츠 박사와 통일부의 서두현 과장이 나섰다. UNHCR의 제니스 린 마셜 대표가 사회를 본 마지막 세션에서는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 북한에 주재했던 영국의 존 에버라드 전 대사와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가 북한 인권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했고 고려대 서창록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상임위원이 토론하였다.

성공적으로 끝난 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장은 정리 및 결론을 통해 각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와 같은 학술회의의 정례화를 당부하였다.

09:30-09:35 개회사 : 테드 립만 캐나다 대사 (북한 겸임)
 09:35-09:40 축사 : 이장무 서울대 총장
 09:40-10:00 기조 연설 : 전 국무총리 이흥구
 10:00-10:15 휴식

SESSION 1 한반도의 비핵화

사회 : 김병국 교수 (고려대학교)
 10:15-10:45 제1발표 : The DPRK Nuclear Challenge in Context
 웨이드 헌틀리 교수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
 10:45-11:15 제2발표 : 북한의 비핵화 지원 방안
 전봉근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11:15-12:00 토론
 안드레이 랜코프 교수 (국민대학교)
 전재성 교수 (서울대학교)
 12:00-13:00 오찬

SESSION 2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제적 지원

사회 : 김병연 교수 (서울대학교)
 13:15-13:45 제1발표 : A Paradigm Shift on Economic Assistance in North Korea: What Can EU Do to End an Endless Game?
 로젤라 이데오 교수 (트리에스테 대학교)
 13:45-14:15 제2발표 : 북한 경제지원에서의 6자회담 비참가국의 역할
 장형수 교수 (한양대학교)
 14:15-14:45 제3발표 :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Options, Negotiating Styles, Outcomes
 피터 헤이즈 박사 (노틸러스 연구소)
 14:45-15:30 토론
 월터 클리츠 박사 (나우만 재단)
 서두현 과장 (통일부 통일정책국 경제분석과)
 15:30-15:45 휴식

SESSION 3 국제협력, 평화, 그리고 북한 인권

사회 : 제니스 린 마셜 박사 (UNHCR 대표)
 15:45-16:15 제1발표 : Global cooperation, Peace and Human Rights: A Practitioner's Perspective
 존 에버라드 대사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
 16:15-16:45 제2발표 : 북한 인권과 6자회담 비참가국의 역할
 김수암 박사 (통일연구원)
 16:45-17:30 토론
 서창록 교수 (고려대학교)
 유남영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17:30-18:00 정리 및 결론
 박명규 소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North Korea's Economy and Politics between Opening and Isolation



통일평화연구소는 5월 28일 독일의 한스 자이텔 재단과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개방과 고립 사이에 선 북한의 경제와 정치(North Korea's Economy and Politics between Opening and Isolation)”라는 제목의 이날 회의는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마로니에 룸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과 노버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오전 첫 세션에서는 이승훈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북한의 현 경제위기와 경제 개혁의 전망에 대해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소)와 임을출 교수(경남대), 그리고 Kang H. Park 교수(사우스 이스트 미주리 주립대)가 발표를 하고 서울대의 다니엘 슈베켄디 박사, KDI의 이석 교수, 그리고 역시 서울대의 김병연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점심에 이은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개발의 정치적·역사적 시각을 주제로 북한대학교 대학원의 이수훈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히로시마 대학교의 김미경 교수, 사우스 알라배마 대학의 장시몬 교수,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의 김석희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울대의 엠마 캠벨과 김병로 교수, 이태호 교수가 참여하였다.

오후 마지막 세션은 참석자 모두가 모인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스 자이텔 재단의 버나드 켈리거 박사가 사회를 보았다. 한미경제학회의 김석희 교수의 폐회사로 막을 내린 이 날의 회의에서는 주로 북한의 경제 문제와 앞으로의 개방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버나드 켈리거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축사 : 김신복(서울대학교 부총장)
 노버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

10.00-10.10 휴식

SESSION 1 북한의 현 경제 위기와 경제 개혁의 전망

사회 : 이승훈 (서울대)

10.10-12.10 양운철 (세종연구소), Reform without Transition :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after July 1st Economic Measures

Park Kang-H, (Southeast Missouri State Univ.), North Korea's Trade and FDI: Does North Korea Follow Vietnam's Path?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Kaesong Industrial Complex : Implications, Assessment, and Challenges

토론 : 이석(KDI), 김병연(서울대), 다니엘 슈베켄디 (통일평화연구소)

12.10-13.40 오찬

SESSION 2 북한 개발의 정치적 역사적 시각

사회 : 이수훈 (북한대학교 대학원)

13.40-15.40 김미경 (Hiroshima City Univ.), The Social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Women's Identity : Victimization, Romanticization, and Vilification in South Korea

Chang Seemon (Univ. of South Alabama), Likely Impact of the U.S. Economic Crisis 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김석희 (Univ. of Detroit Mercy), The Northeast Asian Energy Situation and the North Korean Factor

토론 : 엠마 캠벨 (호주국립대),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소), 이태호 (서울대)

15.40-15.55 휴식

15.55-17.15 라운드 테이블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 : 버나드 켈리거 (한스 자이텔 재단)

17.15-17.30 폐회식

폐회사 : 김석희 (Univ. of Detroit Mercy)

North Korean Nuclear Politics : Constructing a New Northeast Asian Or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6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North Korean Nuclear Politics : Constructing a New Northeast Asian Or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온 24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했다. 박명규 소장과 전재성 평화연구실장, 김병로 전임연구교수가 통일평화연구소를 대표해서 참석하였으며, 외국 참석자로는 일본의 저명한 북한 연구자인 와다 하루키 교수와 워싱턴대학의 하용출 교수를 비롯, 모튼 아브라모위츠(The Century Foundation), 데이빗 바크먼 교수(워싱턴대), 전재성 교수(서울대), 멜 구스타브 교수 (포틀랜드 주립대), 도널드 헬만 교수(워싱턴대), 차이 지안 교수 (북단대), 크리스 존스 교수 (워싱턴대), 캐롤 캐슬러 교수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김재한 교수 (한림대), 사무엘 킴 교수 (콜롬비아대), 션 크레이링 교수(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이채진 교수 (클레어몬트 매캐나 대학), 이흥영 교수(UC Berkely), K.A. 남궁(빌 리처드슨 주지사 자문), 박경애 교수(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 슈테판 해거드 교수(UC San Diego), 스캇 슈나이더 박사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크라크 소렌슨 (워싱턴대), 우승지 교수 (경희대), 아난드 양 교수(워싱턴대) 등이 발표하였다.

이틀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를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 북한의 경제사정과 내부 정치적 문제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6자회담의 미래와 북핵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칠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Thursday, June 4, 2009

9:30-12:30 SESSION 1

Nuclear Strategy and North Korea: Understanding the Nexus between External Polici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Economy

Chair : Myoung Kyu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10:00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Domestic Politics
Samuel Kim, Columbia University

10:45 Nuclear Politics and Economic System Reforms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1:45 North Korea's Changing Perception of the World
Seong Ji Woo, Kyung Hee University

1:30-4:45 SESSION 2

The Nuclear Talks and North Korea's Bilateral Relations

Chair : Mel Gurtov, Portland State University

1:30 Continuity and Change: The Prospects for US-North Korea Relation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Kyung-Ae Par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15 Inter-Korean Relations
Myoung Kyu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Byong R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3:15 Japan-North Korea Relations
Haruki Wada, Tokyo University

4:00 The Changing Nature of Sino-Korean Re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Nuclear Talks
Cai Jian, Fudan University

Friday, June 5, 2009

9:00-11:30 SESSION 3

Nuclear Politics and Regional Order

Chair : Hong 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9:00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a Rational Actor: A Critical Inventory
Yong-Chool Ha, University of Washington
Chaesung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9:45 From Nuclear Talks to Regional Institutions
Scott Sny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0:45 The Six Party Talks and the Energy-Security Nexus: Laying the Foundation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onald Hellmann, University of Washington

12:30-1:00 Keynote - A Synthetic Overview of the Meeting and the Perspectiv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Shadow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mbassador Morton Abramowitz, The Century Foundation

1:00 - 4:00 Session 4

Roundtable Discussion

Chair

Chae Jin Lee, Claremont McKenna College

연구소 개소 3주년 기념 학술회의 강건과 온건의 대북정책 : 스마트파워를 향하여



2009년 5월 6일(수), 통일평화연구소의 개소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움이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열렸다. “강건과 온건의 대북정책 : 스마트 파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이 심포지움은 대북정책의 강경론과 온건론을 전략적, 철학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전략의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연구소의 박명규 소장의 개회사와 통일부 현인택 장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현인택 장관은 축사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의지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 심포지움은 “스마트파워의 개념과 한반도”, “스마트파워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대북정책에서의 강경과 온건-스마트파워를 향하여”라는 세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오전에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 김상배 교수(서울대)는 스마트파워의 개념과 작동방식을 설명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스마트파워를 논하면서 남북관계의 정체성을 '화해, 공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첫번째 세션에 이어서 “스마트파워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제목으로 진행된 두번째 세션에서는 류길재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와 김용호 교수(연세대)가 각각 대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스마트파워와 남북협상에서의 스마트파워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대북정책에서의 강경과 온건-스마트파워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마지막 세션은 장달중 교수(서울대)가 사회를 맡고 패널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수 교수(서강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에드워드 리드(아시아재단 대표), 조동호 교수(이화여대), 박순성 교수(동국대),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스마트파워 관점에서 PSI, 인권, 지원, 경험 등 남북관계 현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의 심포지움은 온종일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인원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심포지움은 어려움에 처한 남북관계에 직면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념적인 확신이나 정략적인 고집이 아니라 타당한 미래구상에 기초하여 가능한 수단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조율하는 능력의 확보라는 것을 확인한 유익하고 의미있는 자리였다.

9:30-10:00 개회사 :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축사 : 현인택(통일부 장관)

SESSION 1 스마트 파워의 개념과 한반도

사회 :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10:00-12:10 제1발표 :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스마트 파워, 김상배(서울대)
제2발표 : 남북관계에서의 스마트 파워 적용 가능성, 백학순(세종연구소)
토론 :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임혁백(고려대), 박형중(통일연구원), 박인휘(이화여대)

12:10-13:30 점심식사

SESSION 2 스마트 파워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사회 :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13:30-15:40 제1발표 : 대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스마트 파워,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제2발표 : 남북 협상에서의 스마트 파워 김용호(연세대)
토론 : 윤덕희 교수(명지대), 허문영(통일연구원), 고유환(동국대),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

SESSION 3 대북정책에서의 강경과 온건 : 스마트 파워를 향하여

사회 : 장달중(서울대)
16:00-18:00 스마트파워 관점에서 본 PSI 참여, 인권, 지원, 경험 이슈
패널 : 박순성(동국대), 김영수(서강대), 조동호(이화여대), 에드워드 리드(아시아재단대표), 제성호(중앙대),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대북정책 로드맵 2020 발표회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 연성복합통일론



통일평화연구소는 5월 19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 연성복합통일론'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한 박명규 소장은 "1989년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통일 방안은 그동안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1세기 지구화의 시대에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가 된 만큼 전통적인 '단일민족' 국가를 상정한 기존의 통일방안도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연성복합통일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성복합통일론'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1년간 서울대학교 내 8명의 공동연구자들(박명규·전재성·이근관·김병연·김병로·박정란·정은미·황지환)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박명규 소장은 "기존 통일방안은 통일의 최종적 목표로 하나의 단일민족 국가의 완성을 상정하는데 비해 새로운 연성복합통일론은 전통적 민족주의보다 한반도 내의 이질성과 다원성을 적극 포용하는 '열린 네트워크형' 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네트워크형' 통일이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처럼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되 무력이나 강제력보다는 문화적이고 지적이며 이질적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연성 권력(soft power)'을 중시함으로써 정부 대 정부 중심의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통일보다 비정부기구,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유연하고도 부드러운 연결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른 발제자인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연성복합 통일론은 북한체제 전환의 연착륙, 남북통합 과정의 연착륙을

중시한다"며 "연성복합통일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려는 민족적 열망을 반영하지만, 통일 시기가 늦춰질 경우 과연 한반도가 (반드시) 근대 민족국가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새 논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에는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전재성(서울대외교학과), 이근관(서울대법학부), 김병연(서울대경제학부),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가 참여했으며, 토론에는 구갑우(북한대학원대), 박영호(통일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종철(통일연구원), 서보혁(이대학술원), 손광주(데일리NK편집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안찬일(서강대), 제성호(중앙대, 인권대사), 조한범(통일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 9:15-9:20 개회사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 9:20-9:30 축사 :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 9:30-10:10 발표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서장 : 새로운 통일론의 필요성과 문제의식"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21세기 통일환경 변화와 연성복합통일론: 정치적 측면"
- 이근관 (서울대 법학부) "연성복합통일론의 법제도 측면"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연성복합통일론의 경제정책"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성복합 통일론의 사회문화정책"
- 10:10-12:30 패널토의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 박영호 (통일연구원)
- 박순성 (동국대)
- 박종철 (통일연구원)
- 서보혁 (이대학술원)
- 손광주 (데일리NK편집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 안찬일 (서강대)
- 이상민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 제성호 (중앙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 조한범 (통일연구원)

2009년도 1차 통일학 기초연구 과제발표 심포지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 교류협력의 쟁점과 대외관계



2009년도 제1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 교류협력의 쟁점과 대외관계”를 주제로 하여 2009년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 제1발표를 맡은 하영선 교수, 전재성 교수,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는 남북관계의 맥락 속에서 평화, 민족, 인권의 세 가지 주요한 테마를 개념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어진 제2발표에서 성상환 교수(서울대)는 1950-60년의 기간 동안의 동독의 외교사료에 나타난 북한 관련기사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시기의 북한의 외교기법 및 태도를 분석하였다. 1회의 마지막 발표에서 이정철 교수(숭실대)는 한반도에서 탈냉전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고간 수많은 ‘말과 행동’의 공방에 주목하고 지난 20년간 묻혀진 ‘기회’와 ‘가능성’을 찾는 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회의(사회: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에서 제1발표를 맡은 임정빈 교수는 북한의 농림수산물 대외 무역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간의 농림수산물 교역확대를 위한 유망 품목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논하였다. 이어진 제2발표에서 윤순진 교수는 북한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향후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충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현을 위한 남북에너지 협력방안에 관하여 논하였다.

제3회의(사회: 황상익 서울대 의학과 교수)의 제1발표에서 임상준 교수는 홍수에 대한 북한 지역의 취약성을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향후 북한 지역의 홍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본 심포지움의 마지막 발표에서 정효지 교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10:00~12:30 제1회의 통일·외교

• 사회 :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제1발표 : 남북관계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평화, 민족, 인권 개념분석

• 발표 : 하영선(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제2발표 :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구동독 외무성 외교사료 수집과 해제

• 발표 : 성상환(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 토론 : 김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3발표 : 북미 대립: 기원, 과정, 전망

• 발표 :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정영철(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12:30~14:00 점심

14:00~15:40 제2회의 농업·에너지

• 사회 : 이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제1발표 : 북한의 농림수산물 대외무역 분석을 통한 남북간 반출입 활성화 방안 연구

• 발표 :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토론 :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발표 : 남북 재생가능에너지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북한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발표 :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 : 윤재영(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50~17:30 제3회의 기후·보건의료

• 사회 : 황상익(서울대 의학과 교수)

제1발표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홍수 위험도 평가

• 발표 : 임상준(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 토론 : 장민원(경상대 지역환경기반공학과 교수)

제2발표 : 탈북청소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 발표 : 정효지(서울대 보건학과 교수)

• 토론 : 박순영(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통일평화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사무처장: 김대식)은 공동으로 2월 13일 오후1시에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간 합의의 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남북관계 전문가 30여명을 초청해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기본합의서의 현재적 의의와 쟁점,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와 접점찾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합의 실천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남북기본합의서 :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하영선 교수는 “북한에게 핵이라는 것은 선군정치의 기반이 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여건을 만드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하 교수는 “햇볕정책”이나 ‘무시전략’도 북한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 하며, 대신 “세계적인 규모의 퍼주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남북간 시각차와 접점 찾기”를 주제로 발표를 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합의무효 선언에 따른 위기관리 조치로 경제부문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합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전면적 대결국면으로 가거나 남북간 합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선언, 10.4선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4차 통일정책포럼 _ “남북관계 20년의 교훈”

통일평화연구소는 제 14차 통일정책포럼을 4월 21일 개최했다.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320호 대형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포럼에는 임동원 전 통일원장관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100여명의 청중이 함께 참여한 제 14차 포럼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사와 청중간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임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기본적 문제들을 통일정책, 대북시각, 북핵전략, 대북정책의 네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새롭게 그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PSI 참여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많은 청중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임 전 장관의 PSI 참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제19차 통일학 세미나_원코리아페스티벌과 재일동포의 발자취



통일평화연구소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소장: 한영혜)는 3월 12일(목) 오후5시에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재일동포: 원코리아페스티벌과 재일동포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세미나실에서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One Korea Festival 정갑수 실행위원장(코리아 NGO센터 대표이사)이 “원코리아페스티벌의 역사와 재일 동포”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정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재일동포의 입장에서 하나된 코리아에 대한 비전을 호소하며 1985년 해방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재일동포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민족통일의 심불이 되고 조국남북 해외동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원코리아의 실현에 공헌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원코리아의 실현은 세계시민으로 연결되는 ‘아시아시민’ 창출을 위한 ‘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원코리아페스티벌이 매년 회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남북통일을 향한 재일동포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20차 통일학 세미나_북한의 인구보건 자료

2009년 3월 17일(화), “자료로 본 북한: 인구·보건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0차 통일학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제1발표는 박경숙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북한의 인구조사 자료와 인구추계”를 주제로 2008년 10월 유엔이 북한에서 실시한 센서스 자료를 포함하여 기존 북한의 인구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소 객원연구원인 Daniel Schwekendiek 박사는 “미지의 통계탐색: 북한의 서베이 자료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Schwekendiek 박사는 북한당국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체검열(self-censorship) 방식으로 자료가 왜곡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제21차 통일학 세미나_Structures Drifting Apart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3월 23일(월) 14:00~16:00에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스톡홀름대학교의 잉골프 키에소우(Ingolf Kiesow) 교수를 모시고 “Structures Drifting Apart: Threats to Korean Unification” 주제 아래 제21차 통일학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잉골프 교수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변화를 역사적 추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찰하면서, 홍수, 기아, 국제정치경제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들이 남북관계와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도 논하였다.

제22차 통일학 세미나_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3월 26일(목) 15:00~16:30에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독일통일경험과 한국을 위한 교훈”이란 주제 아래 한스 자이델 사무총장인 페터 비터라우프(Peter Witterauf) 박사를 모시고 제22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 305호에서 진행된 본 행사에서 비터라우프 박사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급속한 인구이동 및 화폐통합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거한 원칙을 고수하고 인접관련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대체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경험



사례에 비추어 향후 한국의 통일을 위한 교훈을 설명하였다.

제23차 통일학 세미나_중국의 일국양제와 한반도의 남북연합제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4월 29일(수) 14:00~16:00에 “중국의 일국양제와 한반도의 남북연합제”의 주제 아래 이동기 박사(독일 프리드리히-실러 예나대, 현 통일평화 연구소

객원연구원)와 앨빈 쏘(Alvin Y. So) 홍콩 과학기술 대학교 교수(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환교수)를 모시고 제23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본 행사에서 이동기 박사는 “국가연합, 대안일까 망상일까?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안들과 그 현재적 함의”의 주제로 발표를 하며, 49년부터 90년까지 독일에서는 통일론으로서 국가연합이 줄기차게 주장되어 왔고, 그에 따라 다양한 국가연합제안들이 등장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앨빈 쏘 교수는 근현대의 중국-홍콩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중국의 일국양제안이 나타나게된 배경과 더불어 중국-홍콩 간 통합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향후 남북 통합을 위한 통일방안으로서의 연합제와 연방제, 이 둘의 경계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새터민 포럼_북한의 대학과 지식인, 현인에(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

2009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현인에(전 북한 청진의학대학 교수, 현 NK 지식인연대 사무국장)씨를 초청하여 “북한의 대학과 지식인”을 주제로 새터민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 현인에 사무국장은 본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북한의 대학 분류와 관리운영에 관한 개괄적 설명 이외에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북한의 환경 상태, 사회과학문헌 통제, 북한의 시장경제 수준, 북한에서 인기있는 대학 전공, 국내 탈북자 집단의 조직과 성격 등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특히 이번 새터민 포럼에서는 현인에 사무국장의 발표에 이어 본 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인 통일아카데미 수강생들과 평소 북한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교내



학생들, 그리고 외부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호주 LAFIA 파견단 방문 라운드 테이블 회의



2009년 6월 18일(목), 호주정부가 지원하는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인 LAFIA(The Leading Australia's Future In Asia)에 참여한 호주 정부 관료 및 기업가 방문단이 본 연구소를 방문하여 본 연구소 연구진을 비롯하여 국내 남북관계 이슈 전문가와 함께 "North-South Relations"의 주제 하에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남한 시민의 통일외식,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 북한 지도층의 통일관 등 남북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였다.

제5기 통일아카데미 수료식



통일평화연구소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인 통일아카데미 5기의 수료식이 5월 26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마련된 통일교육 사업이다. 이번 제5기 통일아카데미는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8주의 수업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 33명의 수강자 가운데 출석 우수생 22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정규 수업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6월 20일(토)에는 현장학습체험의 일환으로 JSA(공동경비구역)와 임진각 일대의 생태평화공원 등을 견학하였다. 또 제6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전원이 통일아카데미가 귀하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연구나 지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제5기 통일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횟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3월 31일	(입학식)21세기적 통일비전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4월 7일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3주	4월 14일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체제	정창현(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 대표)
4주	4월 21일	남북관계 20년의 교훈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5주	4월 28일	북한 경제개혁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남북 경험의 잠재력	정은미(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6주	5월 12일	북한의 문화예술과 사회문화교류	신동호(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총장)
7주	5월 19일	새터민의 탈북, 그리고 남한살이	박정란(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8주	5월 26일	(수료식)다원화시대의 통일과 평화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본부 연구소 평가

본 연구소는 2009년 서울대 연구소 평가에서 인문사회계 통합연구원 영역의 평가 대상이 되어, 2009년 4월 30일 평가 자료를 본부에 제출하고 현장 평가를 받았다.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

본 연구소는 통일연구를 평화의 인문학적 담론으로 접근하여 통일과 평화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2009년 7월 3일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에 '한반도형 평화와 통일의 융합학문적 구성(Constructing a New Consilience of Knowledge on Peace and Unification : Configuration Model and Crossover Approach to Korean Historical-Cultural Context)'의 주제로 신청하였다. 선정발표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연구원 동정

· 겸무연구원 위촉

직위	소속	직급	성명	임명기간
겸무연구원	산림과학부	교수	윤여창	2009. 03. 10~ 2011. 03. 09

· 실장 위촉

직 위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기간
자료관리 출판실장	국사학과	부교수	정용욱	2009. 03. 01~ 2011. 02. 28
대외 협력실장	정치학과	교 수	백창재	2009. 03. 01~ 2011. 02. 28

· 이순형 교수(서울대 생활과학대학, 본 연구소 운영위원) :

진미정 이순형 김창대 공저.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 학지사. 2009. (책 발간)

· 장경섭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본 연구소 겸무연구원) : (1) 2009년 4월 1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취임 (2) 2009년 5월 28~29일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국제학술회의 주관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본 연구소 통일연구실장)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ies)육성 2차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공동연구교수로는 이 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와 Chenggang Xu 교수 (홍콩대)가 참여하며 연구주제는 "체제 이행과 추격형 성장의 경제학 : 제도, 정책과 북한" 이다. 2008년 8월까지 지속되는 이 사업을 위하여 약 15억원 가량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Independent Researcher 위촉

- Daniel Jong Schwekendiek (원희종)

: 2009. 1. 1 ~ 6. 30(6개월)

- Emma Campbell : 2009. 3. 20 ~ 9. 19(6개월)

· HK 중점연구소 신청 전담연구원

- 이동기 : 2009. 3. 1 ~ 2009. 8. 31(6개월)

· 선임연구원 재계약 임용

- 정은미 : 2009. 3. 1 ~ 2010. 2. 28(1년)

· 조교임용(파트타임/주 20시간 근무)

- 윤보라 : 2009. 3. 11자

〈통일아카데미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6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상 :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09. 9. 1(화) ~ 9. 30(수) 오후 5시
- 교육기간 : 2009년 10월 6일(화) ~ 11월 24일(화), 매주 화요일 19:00 ~ 21:00 (총8회, 현장학습 1일 별도 추가)
- 교육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내 세미나실
- 접수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tongil.snu.ac.kr)에 공지하겠습니다.

해외교류 및 방문

· 이상신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2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BK21 사업단이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Progress and Challenges” 라는 제목으로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고든 플레이크(L. Gordon Flake), 스캇 슈나이더 (Scott Snyder), 라종오 (Jong O. Ra) 등의 미국학자들과 서울대의 이정복, 장달중, 박찬욱, 임혜란 교수, 그리고 숭실대의 강원택 교수등 16명의 대표적 한국학 연구자들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이상신 연구원은 “Candle Demonstration, Internet, and the Korean Democracy”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2008년 촛불 시위와 그 정치적 파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 2009년 2월 7일~12일 박명규 소장과 김병로 교수,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소) 일행은 태국의 탈북자 수용소를 방문하였다. 국경 지대의 메사이, 칸차나 부리 및 방콕 등 3개 지역의 이민국 수용소를 방문 하여 시설들을 돌아보고 탈북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경 지대의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밀입국 현장과 라오스를 답사하였으며, 한국대사관 담당자와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조선족 활동가 및 탈북자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프롬락 변호사 등을 인터뷰하였다.



[태국 메사이 이민국 수용소에서]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본 연구소 방문 (2009년 4월 21일)



· 유진벨 재단(회장 인세반, Stephen W. Linton)이 본 연구소를 방문하여 북한내 결핵요양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2009년 6월 11일)



· 규장각 한국학 여름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들 본 연구소 방문 및 남북 이슈 토론 (2009년 7월 7일)



· 박명규 소장은 2009년 7월 10~11일 양일간 중국 연변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원장 김강일 교수)이 주최한 국제학술포럼에 박명규 소장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북아 대학들간의 협력과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 마우리찌오 리오토(Maurizio Riggio)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교수 방문 (2009년 7월 24일)



『통일포스터』 공모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와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정형민)은 통일 포스터를 공모전(작품 제출기간 2009.7.27~8.21)을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설계가인 학생 및 일반인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수상작은 서울 대 미술관에 전시할 예정이며, 기간은 2009년 8월 26일(수)~10월 29일(목)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미술관 (www.snumoa.org)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PUS 신간안내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6
김병연, 박명규, 김병로, 정은미 저
2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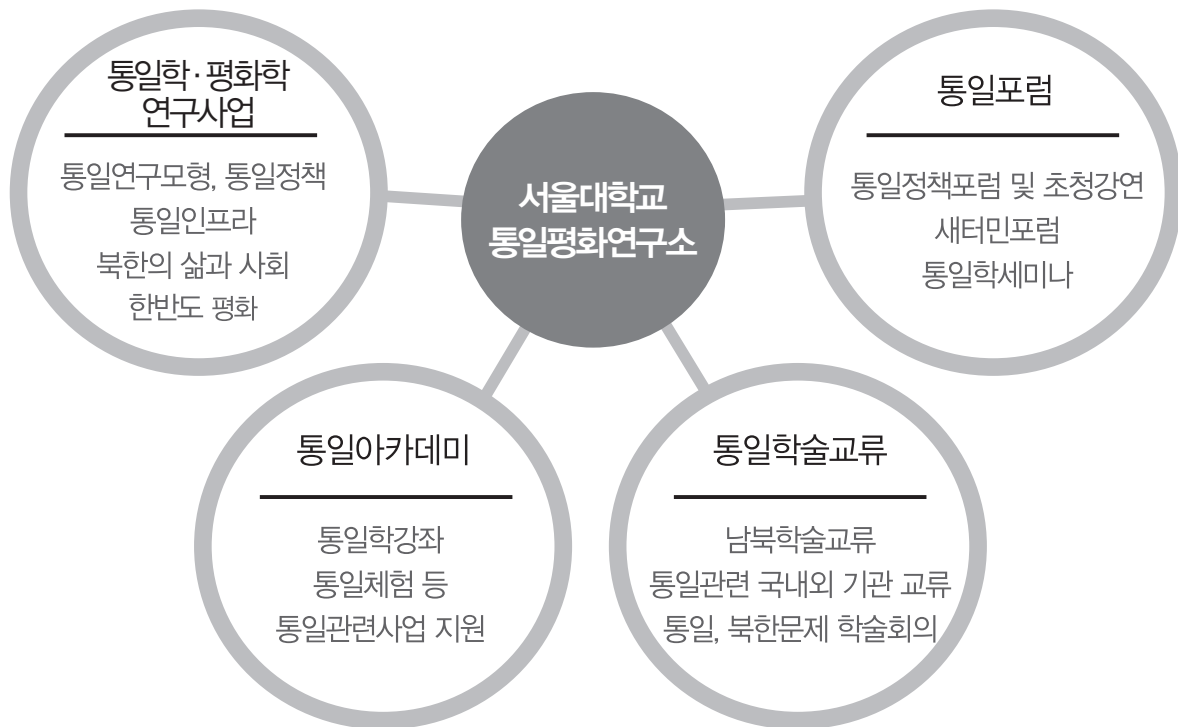
2009년도 하반기 행사 안내

- 학술회의 -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 주최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한국사회사학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원
 - 날짜 : 2009. 9. 4(금) ~ 9. 5(토)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목련홀, 동백홀)
 - 내용 :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우리 민족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검토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전망

SNU 통일연구센터 설립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서울대학교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내 통일연구의 체계화,
남북간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연구센터의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한 비용
22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센터 설립에 참여하실 분에게는

- ▶ 10억원 이상 기부하실 경우 출연자 존함의 기금명(SNU○○○통일학연구기금)으로 체계적인 통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빙교수,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요비용(연간 약 6천만원) 만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프로그램 명칭에 출연자 존함을 부여해 드립니다.